

# 저고리 세부 구조의 발생과 그 형태 변화에 대한 연구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를 중심으로-

채 금 석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Jeogori's Structure and Changes of its Form

-Focused on the Era of the Three Kingdoms to United Shilla Era

Keum-Seok Chae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4. 9. 1 투고)

### ABSTRACT

To find our own individuality, there must be an active study on jeogori which is an unexplored fiel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artistic beauty and predominance of jeogori and recognize it as a precious culture, and also encourage interest about traditions.

The range of this study is ancient times to Chosun dynasty, and in this study which will be the first part, the range is till the era of the Three Kingdoms. The study about jeogori is based on mural paintings of Goguryeo burial mounds, clay dolls and remains during Shilla, Beakjae, and United-shilla era.

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1. research the origin of jeogori's detail structures and changes of the form, 2. analyze the form and structure of the jeogori in each era, and therefore 3. find the predominance of Goguryeo costume by considering functional and design aspects.

Therefore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bout the era of the Three Kingdoms are First, jeogori of the three kingdom era were developed from ancient times caftan style which Korea, China and Japan wore all together. Second, the structure of the jeogori during the Three Kingdom are ryeongum, gil, somae and seon. Third, there is a special line that starts from the neckline and ends at the hem line which should be called ryeongum in my opinion. Forth, while researching Goguryeo murals there were both left and right sided open jeogori. therefore, I would like to set up a new theory that during the ancient times to Three Kingdom era, not did China's clothing effected the Korean costume but the costume in east asia shared their forms all together. <sup>1)</sup>

Key words: jeogori(저고리), Goguryeo(고구려), burial mound(고분), mural painting(고분벽화)

## I. 서론

한 민족의 복식(服飾)은 주로 자연환경과 생활방식에 의해 그 재료, 형태, 양식, 제작방법 등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복식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문화, 사회 제도, 경제적 여건, 정치상황 등은 물론, 유행과 정서, 염원, 미의식까지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척도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복식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작은 거울이며 또한 가장 가치적으로 그 시대를 조명해주는 문화유산이다.

우리 모두가 세계화, 현대화를 지향하며 맹렬한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그 누구도 공유할 수 없는 민족 고유의 독자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 복식美의 현대적 응용과 디자인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 대부분의 역사적 복식의 응용연구가 조선시대의 복식과 그 미적 특징 응용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5000년 역사를 지닌 우리의 전통미의식의 모색이 조선시대에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한국적인 전통미의 다양성을 간과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 고유의 독자성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세부구조의 변화를 보여 온 저고리의 구조적 형태를 현대 디자인으로 전환시키는 감각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조선시대 후기 형태만으로 인지되고 있는 전통복식인 국속저고리를 상고시대부터 삼국시대(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저고리 형태로 형성되는 변천과정을 살펴서 우리 저고리의 깃, 섶, 길, 고름 등의 세부구조가 발생되게 된 근원을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둔다.

연구의 범위는 상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를 범위로 하였으며, 본 1보는 삼국시대까지로 하며, 연구의 방법은 고구려의 고분벽화 중 인물도를 중심으로 한 13기, 신라, 백제, 통일신라는 토우, 토용 및 문헌그림자료를 바탕으로 삼국시대의 저고리의 세부구조에 관해 살펴보았다.

## II. 한국 복식에 대한 일반적 고찰

### 1. 지리적·시대적 배경

#### 1) 지리적 배경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 속하

고, 인종적으로는 알타이계 몽고인종으로 일찍이 문화가 발달되었다. 기후는 온대 내지 한대 남부에 속하며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습윤 아시아에 포함된다. 주로 수렵생활을 통해 衣·食을 해결했으며, 짐승의 계절적 이동을 좇아 생활해야 했으므로 민족 전체가 말을 타고 활을 쏘는데 능숙했다. 그 후 점점 주위의 비옥한 지방으로 정복, 이주하게 되어, 보다 남쪽에 있는 온대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토착농경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기후조건으로 몽고는 유목이동, 만주는 유목이동과 농업토착, 중국, 한국, 일본 등은 모두 농업토착으로 각 지방의 주요 생업과 주민의 기본 동태를 결정하게 되었고, 이러한 민족간의 이동은 문화 전파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2) 시대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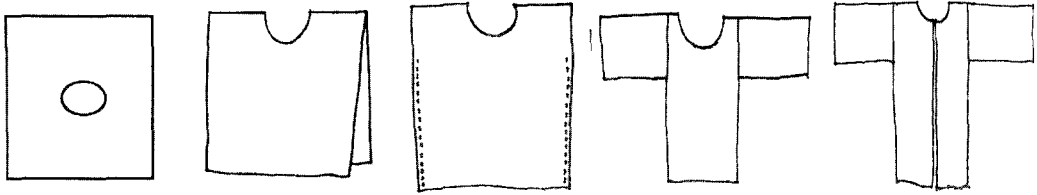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지리적인 위치의 특성상 외적의 침공을 빈번하게 받았으며, 이 때마다 타민족과의 접촉으로 그들의 문화적 특질이 우리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고조선은 중국으로부터의 망명객을 받아들이고 그 문물을 흡수하여 가장 개명되었던 나라인데, 망명인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겨 위만조선으로 설립되었다가 한사군의 설치로 멸망하였다. 그 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가 전개되는데 부여에서 일어난 고구려는 고조선의 후계로서 한사군의 주축인 낙랑을 멸망시켰으며 중국 본토와 수·당나라의 한문화가 고구려에 흘러 들어왔음으로 추정된다.<sup>1)</sup>

백제는 시조왕 때 말갈과의 접촉이 시작되어 오백여년간 계속되었으며, 남북조의 여러 나라와도 자주 사절을 교환하고, 수, 당과의 왕래가 빈번하여 대륙문화가 직접 백제에 들어오게 되었다.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보다 이민족과의 접촉이 비교적 적어서 대륙문화의 수입은 가장 늦었으나, 후에 낙랑과 말갈은 물론 중국의 부진, 양, 북제, 진 등과 교류했으며 수, 당과도 빈번히 왕래하였다.

통일신라는 고구려·백제의 문화를 흡수 통합하고, 당 문화를 받아들여 귀족적이고 불교적인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 3) 정신문화적 배경

삼국시대의 정신문화적 배경은 샤머니즘과 불교, 유교, 도교로 구성된다. 불교 수용 이전에 삼국시대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가장 영향을 주었던 것은 무속신앙이었다. 무속신앙에서는 자연을 중추에 놓고 세계를 파악했고, 인간은 그 세계의 구성요소에 지



<그림 1>

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세계는 다양한 귀신이나 영적 존재에 의해 움직이며, 이들 각종의 정령이 현세에서 생활하는 인간의 길흉화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음에 따라 무당(巫, shaman)의 역할이 자연히 중요시되었다. 불교 수용 이후 이런 측면의 상당 부분은 불교 승려가 담당하게 된 뒤에도 무속신앙은 당시인의 의식세계에 계속 큰 영향을 미쳤다. 왕실과 귀족들은 불교를 지원했고, 승려는 왕실과 밀착해 그를 위한 일에 복무하였다. 자연 당대의 불교는 국가불교·왕실불교적인 성격을 띠었으며, 호법(護法)은 호국(護國)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이 시기 불교는 재래의 샤머니즘과 융합되어 기복적이며 주술적인 면이 강하였는데, 병을 낫게 하고 적군을 물리치는 신통술을 비는 등, 현세에서의 복락과 신이(神異)를 추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이 크게 유행하였다. 이러한 불교적 윤리관의 보급에 따라 기존의 계세적 내세관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계세적 내세관에서는 인간의 삶이 죽음과 함께 영원히 끝나지 않고 저승에서 그대로 계속된다고 믿었다. 즉, 불교 교리에서는 죽은 자는 현세에서 행한 업(業)과 공덕에 따라, 즉 인과응보에 따라 내세에서 일정한 형태로 윤회전생하거나 왕생극락한다는 것이다. 이런 윤회전생설은 현세의 삶에 대한 당시인들의 태도에 양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함께 도가적(道家的)인 관념은 재래의 산악신앙·신선사상 및 주술신앙 등과 어우러진 것으로 여겨진다.

## 2. 한국복식의 기본 구조

상고 복식의 기본형을 이루기 이전, 한족문화가 침식되지 않았던 시기의 의복조형은 피의를 들 수 있다. 그 후 생활 형태가 유목생활에서 농경생활로 정착되면서 의복 재료도 피의소재에서 섬유질 소재로 바뀌는 등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우리저고리의 초기형태는 카프탄형으로, 카프탄

형의 저고리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원시시대의 관두의형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사냥한 동물의 가죽을 네모지게 잘라서 그 중앙에 구멍을 뚫은 관두의형의 피의(그림 1)<sup>2)</sup>에서 발달하여, 여기에 직사각형의 소매를 달고, 막혀있던 앞부분을 절개한 것이 카프탄 형 의복이다. 카프탄 형의 의복은 북방민족 및 중국, 일본과 함께 공유했던 형태로, 우리민족의 고유한 복식인 저고리(유)는 카프탄 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복식 자료 등에 가장 앞선 것은 기원전 3000년 경부터 시작된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다. 유물로는 뼈바늘과 방추차<sup>3)</sup> 그리고 몸을 장식하던 식옥류, 귀걸이, 팔찌 따위가 발견되어 신석기 시대의 복식의 일면을 짐작하게 한다. 대전에서 출토된 청동기 유물을 보면 바지, 저고리를 기본으로 하는 복식 구조를 보이는데, 이를 호복이라 한다.

호복은 우리나라 복식의 초기 양식이며 이후 중국복식을 받아들여 고유복식과 외래복식의 이중구조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외래복식의 유입은 지배계급에서 그 정치논리에 따라 탄력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서민계급은 전통의 호복을 그 고유성으로 잘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북방민족계통의 영향을 받아 삼국은 통일신라시대까지 대체로 유사한 복식을 착용하였다. 백제 문화는 525년의 지석(誌石)에 있는 위덕왕릉이 발견되어 백제 문화의 발자취를 더듬을 수 있게 되었지만 백제복식은 재현할 수 없는 상태이다. 6세기 초, 수에 백제의 사서도가 있지만, 중국화된 것으로 평민의 복제는 아니다. 그러나 백제 복식에 관해서 복서 등에 의하면, [其衣服飲食與高句麗同]이라 하여 복식이 고구려와 거의 유사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新羅條에 의하면 [風俗行政衣服略高句麗百濟同]이라는 기록으로 신라의 복식은 고구려, 백제 복식과 같이 삼국의 복식이 대개 동일했던 것을 중국 사서에 의해서 짐작할 수 있다.<sup>4)</sup>

삼국시대의 복식은 고구려의 고분벽화나 신라의 출토 유물(토우, 토용)에서 그 형태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머리에는 관모를 썼으며, 저고리 길이가 둔부선까지 내려오고 앞길 도련은 직선으로 교차시켜 여미는 형태이다. 또, 령(領), 도련, 수구(袖口)에는 다른 색으로 선을 두르고 바지는 가랑이가 좁은 홀대바지형이며, 궁고, 광고, 잠방이와 같은 바지도 있었다. 치마는 길이가 길고 아랫단까지 잔주름이 잡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두루마기는 무릎 아래 길이이고, 저고리와 같이 선을 돌렸으며, 신은 주로 발목이 긴 화(靴)를 착용하였으나 이(履)도 병용하여 신었다. 이와 같이 우리옷의 기본형태인 착수 궁고는 아한 열대성기후에 알맞은 북방 호복 계통 복식이다.(그림 2) 즉, 삼국시대의 우리 고유의 복식은 대체로 유, 고, 상, 포를 중심으로 하여 관모, 대, 화, 이가 첨부된 북방 호복계통의 복식구조로서 북방유목민족 전체의 복식을 의미하는 호복은 그 시대의 생활양식인 기마수렵생활에 편리하도록 형성되었다.(그림 3)

통일신라시대의 복식을 살펴보면, 삼국시대에 없었던 새로운 복식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관모에 있어서 북두이고, 의복에서는 반비, 배당, 그리고 표이다.(그림 4) 상의에는 표의, 반비, 단의, 내의, 배당이 있었고, 하의로는 고와 상이 있었다. 또한, 대에는 보통의 대와 오대가 있었고, 말과 신목이 있는 신발의 화, 신 운두가 낮은 신발인 이, 그리고 수, 당의 육합화에서 모방한 화대가 있었으며, 표는 여인들이 목 뒤에서 가슴 앞으로 길게 드리운 것으로 일종의 목도리이다.



〈그림 2〉



〈그림 3〉



〈그림 4〉

### Ⅲ. 저고리 형태의 변화

#### 1. 삼국시대의 저고리

##### 1) 명칭

상고시대에는 저고리란 말 대신 유(襦), 삼(衫), 의사포(衣似袍), 또는 위해(尉解) 등으로 사용되었다.<sup>5)</sup>

##### (1) 유(襦)

유는 설문(說文)에 단의와 같다고 설명되어 있으며, 급취편(急就篇)에서는 단의(短衣)는 유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유가 저고리란 의미의 가장 대표적인 어휘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유는 겹이나 솜을 두어 만든 보온용의 의복으로 피부에 닿는 옷의 의미도 포함하고 덧입는 옷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었다.

##### (2) 삼(衫)

삼<sup>6)</sup>은 대수(大袖衫), 복삼(複衫), 삼통수(衫筒袖), 삼(衫)으로 나타나며, 현재에는 여름용 홑 옷을 말하지만, 약학계범에 쓰여진 한삼의 형태가 저고리의 형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기에 조선 이전까지는 소매가 손을 덮을 정도로 긴 저고리를 의미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의사포(衣似袍)

백제의 귀인이 입었다는 의사포는 포와 비슷한 옷이라는 의미로 적리에 해당하는 옷으로 볼 수 있다. 저고리의 길이를 길게 연장하면 포와 유사함을 표현한 것으로 백제시대의 긴 저고리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 (4) 단의(短衣)

삼국사기 흥덕왕 복식금제에 단의(短衣)와 내의(內衣)란 말이 보인다<sup>7)</sup>. 이는 단상의(短上衣)를 단의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표의(表衣)에 비해 짧다는 뜻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허리부분에 상을 입고 유를 그 위에 입는 전통적인 착장법과 달리 유를 먼저 착용한 후 상을 가슴 높이에서 입게 되면서 상과 더불어 착용된 상의는 기존의 유와 비교할 때 길이가 짧기 때문에 단의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sup>8)</sup>

##### (5) 위해(尉解)

몽고어의 옷옷이라는 표음어의 위해란 신라어로 우티, 우테, 우퇴 등으로 변형되어 불려졌으며, 지방에 따라 옷거리, 옷걸기 등이 있어 위에 걸치는 뜻을 가지고 쓰여졌다. 위해의 표음은 임란전에는 우퇴였고, 조선시대에는 치마를 뜻하였는데 현재는 옷의 방언으로 우투, 우치, 옷해라는 말로 쓰이고 있다.<sup>9)</sup>

#### 2) 삼국시대 유물을 통해 본 저고리(유)의 형태

##### (1) 고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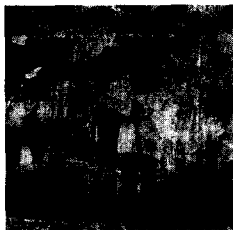
고구려는 현존하는 벽화 95기 중 인물풍속도를

중심으로 훼손이 적은 벽화 13기를 토대로 하여 살펴보고 있으며, 벽화에 그려진 인물의 신분은 벽화 해설<sup>10)</sup>을 참조하여 남자귀족, 남자시중, 남자평민, 여자귀족, 여자시녀중, 여자평민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저고리(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5〉의 황해남도 안악군에 위치한 안악3호분벽화(서기 357년) 전실 서측실 남벽 중앙에 크게 그려진 여인은 귀족으로 추정되며 이에 나타난 상의는 적색의 우임으로, 허리에는 대를 매었고 무릎을 덮는 길이에 소매가 짧은 것으로 보아 반비로 추정된다. 그 안에 입고 있는 백색의 내의는 우임으로 이는 國俗의 저고리(襦)가 아닌가 추정된다. 〈그림 6〉의 안악3호분벽화 동쪽회랑 동벽행렬도에 말을 끌고 가는 평민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유는 소색으로, 둔부선 길이의 우임·착수 형태이다. 허리에는 선명한 붉은 대를 앞에서 여렸으며, 유 안에 우임으로 된 소색 내의를 겹쳐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7〉의 안악3호분 동쪽 곁칸 동벽 부엌에 그려진 밥 짓는 여자의 유는 소색으로, 둔부선 길이의 좌임·착수 형태이다. 허리에는 소색의 얇은 대를 들렀으며, 목둘레와 수구 부분에 현색의 선을 장식했다. 고구려의 평양천도 전인 357년에 황해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안악3호분벽화의 저고리가 신분과 성별에 관계없이 좌임·우임이 혼용되어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초기의 고구려 수도였던 길림성의 집안지역 근처 벽화에는 좌임이 많고,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후로 중국 복식의 영향을 받아 우임으로 변화하게 되었다<sup>11)</sup>는 판단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반비는

통일신라시대 당의 영향에 의한 복식으로 인지되고 있는데, 서기 357년의 고구려 초기 벽화인 안악3호분에서 이와 같은 복제가 보여지고 있음은 앞의 논리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즉, 이 시기의 국제질서는 고구려와 북방의 유목제국, 그리고 중국의 남북조를 중심으로 한 체제<sup>12)</sup>였으며, 그 당시 국가의 국경은 선으로 확정지어진 오늘날과는 다른 세력권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신분이 높은 층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복제를 이미 공유하고 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림 8〉의 중국 길림성 집안현에 있는 각저총(4세기 말) 안칸 왼쪽벽화 원편에 그려진 여자는 국속의 고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평민으로 추정되는데, 이 평민여자는 소색바탕에 현색 선과 현색 점을 넣은 유를 착용하고 있으며, 둔부를 반쯤 덮는 길이로 좌임의 형태이다. 평민이라는 신분으로 미루어 면포나 마를 소재로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9〉의 각저총 안칸 안쪽 벽화 원편에 보이는 남자는 크게 묘사된 것으로 보아 귀족으로 추정되며,<sup>13)</sup> 유는 붉은 기운의 황토색 바탕에 목둘레 부분에는 현색의 주선과 적색의 가느다란 부선이 보이며, 도련과 수구에 현색선 장식이 보여진다. 길이는 둔부선 길이이며, 좌임의 착수형이다. 〈그림 10〉의 각저총 안칸 오른쪽 벽화 오른쪽에 보이는 남자의 유는 노란기운의 붉은 색 바탕에 목둘레 부분과 도련, 수구 등에 현색선 장식이 보여지고, 둔부선 길이의 좌임으로 소매의 길이가 짧으며 허리에는 현색의 대를 앞쪽에서 매었다. 각저총에 나타난 저고리는 신분·성별에 관계없이 좌임이 우세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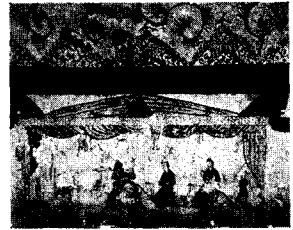
〈그림 6〉



〈그림 7〉



〈그림 8〉



〈그림 9〉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그림 11〉의 평양 대성구역 고산동에 위치한 고산동7호무덤(4세기 말-5세기 초)의 앞칸서벽북쪽부분에 그려진 남자는 말을 끌고 가는 것으로 봐서 평민으로 추정되며 남자가 착용한 유는 노란빛이 도는 황토색 바탕에 도련 부분에 현색 선 장식이 있으며, 둔부선 길이의 좌임이다. 그 안에는 소색의 좌임형태의 유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허리에는 현색 대를 매었다. 고산동7호무덤벽화는 평양에 위치한 고분임에도 불구하고 좌임형태의 저고리(유)가 발견되고 있다. 이 역시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후로 중국복식의 영향을 받아 우임으로 변화하게 되었다<sup>4)</sup>고 하였다는 판단에 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2〉의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리에 위치한 동암리벽화무덤(4세기 후반)의 벽화에 서 출토된 조각에 그려진 남자는 소색과 청색으로 이루어진 격자무늬 바탕에 목둘레 부분과 도련, 수구 부분에 적색주선과 현색부선의 장식을 한 유를 착용하고 있다. 유는 둔부선의 길기로 좌임·착수형이다. 〈그림 13〉의 같은 벽화에서 출토된 조각에 그려진 남자는 소색 바탕에 현색 점 장식을 하고, 목둘레 부분에는 적색의 주선과 현색의 부선을 두른 유를 착용하였다. 앞단선과 도련은 현색 선으로 장식하였고, 둔부선의 길기로 좌임·착수형이다. 동암리벽화에서 나타난 저고리 역시 고분이 위치한 곳이 중국 복식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평양지역임<sup>5)</sup>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속이라고 인지된 좌임이 보여지고 있다.

〈그림 14〉의 남포시 강서구역 약수리에 위치한 약수리무덤벽화(4세기말-5세기초)의 앞칸남벽동쪽부분의 문지기<sup>16)</sup>는 황색바탕의 둔부선의 길기로 좌임·착수형의 유를 착용하였다. 허리에는 가느다란 흑갈색의 대를 매고 있다. 약수리 벽화도 동암리 벽화와 마찬가지로 평양지역의 벽화임에도 불구하고 좌임의 저고리(유)가 보여지고 있다.

〈그림 15〉의 길림성 집안현에 위치한 무용총(4세기 말-5세기 초)의 무용도 중앙에 위치한 무희로 추정되는 여자의 유는 황토색 바탕에 현색 반점 무늬가 있으며, 목둘레 부분과 도련, 수구 등에 현색 선 장식이 보인다. 둔부선 길기로 좌임·장수형의 유에 대를 매고 있다.<sup>17)</sup> 당시에는 무희들의 신분이 낮았으므로 면포류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매가 매우 긴 것이 특징인데 삼국사기에 기록되어진 바로 백제와 신라에서 유사한 형태가 보여진다. 〈그림 16〉 역시 무용총에 그려진 현실벽화 기마 인물로 적황색 유에 현색과 소색의 선을 두른 좌임형태이다. 소매가 매우 좁은 착수의 형태는 말을 타면서 활쏘기에 용이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우리 고유의 국속의 유이다. 〈그림 17〉의 무용총 안칸왼쪽벽 오른쪽에 그려진 남자는 다른 사람에 비해 크게 묘사된 것으로 보아 귀족계급으로 추정되며, 흑녹색 바탕의 유에 현색의 주선과 적색의 부선



〈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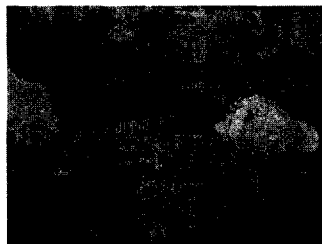
〈그림 15〉



〈그림 16〉



〈그림 17〉



〈그림 18〉



〈그림 19〉

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 둔부선의 길이로 좌입·착수형이며 허리에는 대를 매고 있다. <그림 18>의 무용총 안칸왼쪽벽에 그려진 사냥도 중앙에 그려진 황색 바탕의 남자의 유는 목둘레 부분과 도련부분에 현색선 장식을 하였고, 둔부선 길이이며 좌입·착수형으로 대를 땀다. 무용총 벽화에 나타난 저고리는 계급에 상관없이 좌입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무희라는 독특한 직업으로 인한 장수 소매가 보인다.

<그림 19>의 평안남도 대동군 팔청리에 위치한 팔청리벽화무덤(4세기 말-5세기 초)에 그려진 유는 황토색바탕에 목둘레부분과 수구에 소색의 주선과 현색의 부선으로 장식한 둔부선길이의 좌입·통수형태이다.

<그림 20>의 길림성 집안현에 위치한 삼실총(4세기 말-5세기 초) 행렬도에 그려진 11인의 인물을 편의상 좌측부터 차례대로 성과 계급에 따라 번호를 붙여 분류하였다. 첫 번째 인물인 여자 평민①은 황토색 바탕에 현색의 둥근 점무늬가 찍힌 유를 입고 있으며 수구와 목둘레에서 도련으로 이어지는 현색의 선을 돌렸으며 둔부를 반쯤 덮는 길이이다. 좌입의 통수이며 허리에 대를 매었다. 두 번째 인물은 크기가 다른 인물에 비해 큰 것으로 보아 부덤주인으로 추정되며 남자 귀족①로 소색 바탕의 유 위에 현색의 반비로 추정되는 복식을 착용했으며, 목둘레와 도련부분에 붉은색의 선 장식이 보인다. 둔부를 반쯤 덮는 길이이며, 허리에 대를 매었다. 세 번째 인물과 여섯 번째 인물은 크기가 큰 것으로 보아 귀족으로 보이며 여자귀족①, 여자귀족②로 소색 바탕의 포를 입고 있으며, 수구와 도련에 현색의 선장식이 있고, 좌입이며 허리에 대를 땀다. 여자귀족①의 경우 특이하게 목둘레부분에만 현색의 이중선 안에 붉은색의 선장식이 있다. 네 번째 인물, 다섯 번째 인물, 열 번째 인물은 각각 여자평민②, 남자평민①, 남자평민②로 소색 바탕의 유에 수구와 목둘레에서 도련으로 이어지는 현색선을 돌렸으며, 길이는 둔부선 길이로, 좌입이며 허리에 대를 땀다. 남자평민②의 경우 현색 무늬가 찍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곱 번째 인물과 여덟 번째 인물의 경우 일산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녀①, 시녀②로 추정되며 소색 바탕의 유에 수구와 목둘레에서 도련까지 현색의 선장식이 있으며 둔부선 길이로 좌입이며 대를 매었다. 시녀②의 경우 세로로 길쭉한 현색 무늬가 찍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홉 번째 인물은 여자 귀족③으로 흑갈색의 포를 입고 있으며 수구와 목둘레, 앞단선, 도련으로 이어지는 현색 선장식이 보인다. 좌입이며 포의 뒷부분에서 대를 매

었다. 마지막 열한 번째 인물 역시 남자평민③으로 황갈색 바탕의 유에 세로로 길쭉한 현색 무늬가 있으며 수구와 목둘레, 도련부분에 흑색 선장식이 되어있으며, 좌입의 둔부선 길이에 대를 매었다. 또한 <그림 21>의 삼실총에 그려진 역사 그림에서 소색의 특이한 유가 보여 지는데, 둥근 목둘레로 앞이 트이지 않은 곡령의 상의는 착용시 목을 끼워서 입어야 하였으므로 목둘레가 넓고 낮은 모습을 하고 있다. 목둘레에 현색의 가선을 두르고, 전면에 홍색 줄무늬로 바탕색과 다르게 장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유는 우리 국속의 유와는 차별되는 형태인데, 이는 중국의 영향이거나 중앙아시아의 카프탄 스타일의 유의 전신인 피의 형태에서 발전된 곡령의 유로 이해된다. 삼실총에 그려진 저고리(유)는 계급에 상관없이 좌입이 보이고 있으며, 길이는 대체로 둔부선 길이와 둔부를 반쯤 덮는 길이로 축약된다.



<그림 20>



<그림 21>

<그림 22>의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리동에 위치한 덕흥리고분(5세기 초) 앞칸 동쪽 천정 중앙 아래에 그려진 붉은 기운이 도는 황토색 바탕의 남자의 유는 둔부를 반쯤 덮는 길이의 좌입으로 소매를 걷어 올린 것이 특징이다. <그림 23>의 덕흥리고분 안칸 북벽서쪽부분에 그려진 남자는 말을 끌고 가는 것으로 봐서 평민으로 추정되며 겹에 입은 붉은 황토색 바탕의 유는 둔부선 길이로 우입의 통수이다. 그 안에 흑녹색의 좌입의 착수형 유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허리에는 대를 매었다. <그림 24>의 덕흥리고분 앞칸서벽 13군태수부분에 그려진 남자는 겹에 붉은 색 바탕의 포가 바다까지 끌리는 정도의 길이로 좌입이며 대수이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목둘레로, 직령에서 단령으로 변화하는 과도기로 추정되는 곡령고임이 보여지며, 목둘레와 수구 부분에 현색선을 장식하고 있다. <그림 25>의 덕흥리고분 안칸북벽 우측상단에 그려진 사람은 정면에 크게 그려진 사람과는 대조되도록 작게 그린 것으로 보아 평민으로 추정되며, 겹에 입은 황토색 바탕의 유는 둔부선 길이로 우입이며 착수이다. 목둘레와 수구 부분

에 소색으로 선을 대었다. 덕흥리 고분을 살펴본 결과 신분에 관계없이 좌·우임이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24>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흔히 중국의 영향으로 인지되고 있던 곡령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지해야 할 것은 완전한 곡령의 형태가 아닌 직령에서 곡령으로 변화하고 있는 곡령교임의 형태가 보여진다는 점과 그 곡령교임의 입제가 좌임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곡령과 단령이 통일신라시대 이후 중국의 영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곡령이 중국의 영향이라면 곡령교임도 우임으로 그려져야 하나 좌임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은 앞서의 논리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림 26>의 길림성 집안현에 위치한 장천1호분(5세기 중엽) 들놀이 장면 위쪽에 그려진 무용수로 추정되는 남자의 유는 소색 바탕에 현색 다이아몬드 문양을 넣었으며 목둘레 부분과 도련, 수구 등에 현색선 장식과 그 주변에 적색의 가느다란 부선이 보이며, 둔부선의 길이로 좌임의 장수형 직령교임식이다. <그림 27>의 장천1호분에서 시종으로 추정되는 남자주인공의 유는 고구려시대 평민의 옷으로 소색 바탕에 다이아몬드의 점무늬로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으며, 현색으로 선과 무늬를 넣었다. 소재는 이 시기에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던 마나 면포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보여지는 유는 둔부선 길이이며 집안시대의 특징적인 좌임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대를 땀다. <그림 28>의 장천1호분에서 여자시종의 유는 짙은 두록색 바탕에 자주색과 벽돌색으로 이중선을 들렀으며, 이 역시 마나 면포로 만들어 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입제는 좌임이며, 소매는 걷어 올려 손과 팔을 드러내고 있으며, 직선의 통수로 추정된다. 길이는 둔부선이며 대를 땀다. 장천1호분의 저고리는 둔부선 길이의 좌임·통수 형태로 삼국시대 저고리의 기본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그림 29>의 남포시 대안구역 은덕동에 위치한

대안리1호무덤(5세기 중엽) 안간서쪽벽 인물군상 중앙에 그려진 남자는 현색바탕에 목둘레부분, 앞단, 도련에 유의 색보다 호린 현색 선 장식을 한 유를 입고 있다. 길이는 둔부를 반쯤 덮었으며 좌임으로 허리에는 대를 매었다. 유 안에는 소색의 곡령이 보이는데 이는 내의로 추정된다.

<그림 30>의 남포시 강서구역 수산리에 위치한 수산리벽화무덤(5세기 후반) 고분 서벽에 그려진 여자주인공은 귀족으로 추정되며 흑녹색 바탕의 유에 목둘레부분과 수구에 적색의 선을 두르고 둔부를 완전히 덮는 둔부선 길이의 우임이다. <그림 31>의 수산리벽화무덤 고분 서벽의 기예단의 남자는 소색바탕의 유를 입었다. 목둘레와 도련, 수구부분에 현색 선 장식을 하였으며 길이는 둔부선으로 좌임의 착수형이다. 허리에는 소색의 대를 들렀다.

<그림 32>의 남포시 용강군 용강읍에 위치한 쌍영총(5세기 말) 불교공양도에 그려진 3번째 여자의 유는 현색바탕에 홍색의 선을 두른 건류로 추정되는 소재를 사용한 둔부선 길이의 우임·직령으로 보여진다. 소매가 넓은 상의에 촘촘하게 주름이 잡힌 치마를 착용한 것으로 보아 귀부인으로 추정되며 유의 목둘레 부분과 도련, 수구의 홍색 선에는 문양을 넣어 섬세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의 쌍영총 안길동벽에 그려진 여자는 소색의 바탕에 현색과 홍색으로 주선, 부선의 2중의 가선을 목둘레 부분, 도련, 수구 부분에 두르고 있다. 또한 가선에는 문양이 새겨져 장식효과를 높이고 있다. 둔부선보다 조금 더 긴 길이의 우임으로 대의 유무는 알 수 없다. 쌍영총벽화를 살펴본 결과 우임의 저고리가 많았으며, 다른 벽화에 비해 가선의 장식이 화려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고구려 벽화를 분석한 결과 각저총, 무용총, 삼실총, 장천1호분 등 집안 지역 고분 벽화에서 나타난 '유'의 형태는 좌임에 직령이 대부분이며, 착수와 통수라는 소매통의 차이만 보여진다. (집안 지역의 유의 형태 중 삼실총 역사만 곡령이다.) 평양



<그림 22>



<그림 23>



<그림 24>



<그림 25>





<그림 26>



<그림 27>



<그림 28>



<그림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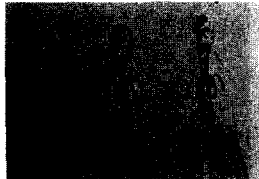
<그림 30>



<그림 31>



<그림 32>



<그림 33>

천도 이전까지의 평양 지역에서 나타난 유의 형태 또한 좌임에 직령이 대부분이며, 소매통의 차이만 보여지는 것으로 보아 평양 천도이전까지는 좌임·좌수형의 기본형이 존재했다고 추정되나, 안악3호분의 경우 평양 천도 전에 만들어진 고분벽화로 좌·우임이 혼용된 것으로 보아 반드시 우임이 중국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는 기존의 학설에는 의문이 제기되는 바이다. 또한 고구려 벽화를 시대 순으로 분석한 결과 령금의 형태 변화가 보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악3호분을 비롯한 초기 벽화의 령금은 어깨에서 시작하여 반대편 골반까지 가로지르는 가파른 대각선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수산리 벽화를 비롯한 5세기 후반 이후의 벽화에서는 가파른 대각선의 형태를 띠고 있던 령금이 어깨에서 시작하여 앞 중심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백제

백제는 부여 능산리 집터 유적에서 발견된 금동용봉래산향로에 조각되어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34>의 금동용봉래산 아랫부분 연꽃에 부조되어있는 비천선인상이 입고 있는 유는 좌임 직령의 형태에 허리에 대를 매고 있으며 목둘레, 도련, 수구에 선이 대어져 있다.

### (3) 신라

신라는 토우와 도제기마인물상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림 35>의 신라 토우에서 여인은 포를 착용하지 않고 유의 길이가 둔부를 약간 덮은 정도의 길이로 앞서 살펴본 고분벽화와 유사한 유의 형태를 보이며, 주름치마를 입고 있다. 남자토우는 궁고에 역시 우임 착수의 유에 허리에는 대를 매고 있어 이들의 신분은 당시 서민 남·녀의 모습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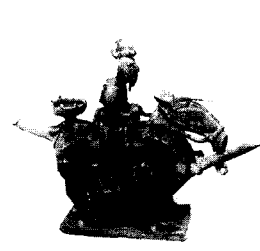
<그림 36>의 신라 5~6세기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금령총 출토의 도제기마인물상은 궁고에 둔부선 길이에 착수의 상의를 입고 있는데 이는 신라시대에 단의로 불려졌던 유로 보이며, 허리



<그림 34>



<그림 35>



<그림 36>



〈그림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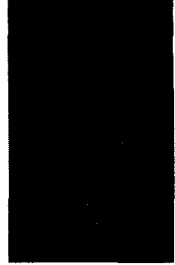
〈그림 38〉



〈그림 39〉



〈그림 40〉



〈그림 41〉

에 요대를 매고 있다.

#### (4) 통일신라

통일신라는 용강동, 황성동 토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37〉의 용강동석실고분과 황성동석실고분의 인물상(AD669-935)은 귀부인으로 추정되는데, 가슴 높이에서 여민 상 아래에 상의를 입고 있어 착용된 상의가 어느 정도의 길이였는지 알 수는 없고 상의의 목둘레선은 표현되어 있지 않으나 남자 토우에서 단령포를 착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둘레선이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여자토우의 경우에도 단령으로 추측된다.<sup>18)</sup>

〈그림 38〉의 통일신라 상주석각천인상은 직령 반수의 아래에 단령의 옷을 받쳐 입고 있지만 역시 반수의 아래에 입고 있어 길이는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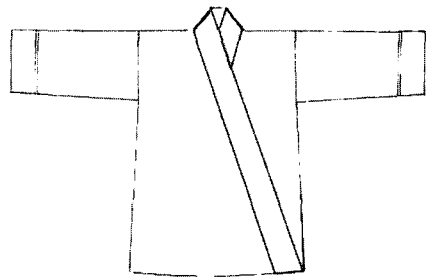
〈그림 39〉의 통일신라 토제여인상은 직령상의 안에 단령의 상의를 겹쳐입고 있다. 목둘레 이하 도련선까지와 수구에 이중선 사이 빗금선 장식이 있는 직령유와 상을 입고 있는데 유는 무릎선 정도의 길이이다. 목둘레 이하 도련선까지의 이중선 사이 빗금선과 수구의 이중선, 빗금선 모두 금박편으로 장식한 흔적을 볼 수 있어 실제 복식에서는 금박 혹은 금사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직령의 유 안에는 가슴선에 황으로 장식된 선이 보이고 직령유의 수구 안쪽으로 착수의 수구가 표현되어 있어 비교적 여밈깊이가 깊은 단령에 착수 소매의 상의를 먼저 착용하고 그 위에 직령의 유를 착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직령 유는 앞에서 완전히 여며지지 않고 약간 벌어진 對衿형으로 안에 착용한 단령 상의의 길이를 파악할 수 있는데 길이는 무릎선 정도로 길에 입은 직령유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sup>19)</sup>

〈그림 40〉의 문무왕릉에 조각된 12지신상에 나타난 상의의 여밈 부분을 살펴보면 직령과는 다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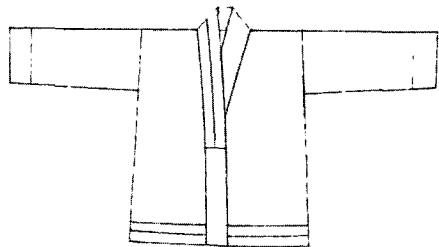
아주 완만한 곡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옷깃의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1〉의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압 궁전벽화의 신라사절이 입고 있는 저고리의 형태는 〈그림 40〉과 같이 여밈부분이 직령과는 다르게 미세한 곡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관두의형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그간의 학설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상을 통해 삼국시대 남·여 저고리(유)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그림 42),(그림 43)



〈그림 42〉 4세기



〈그림 43〉 5세기 후반

〈표 1〉 삼국시대의 저고리 세부구조

		길이	임계	명	소매	소재	색	선	계급			
안악3호분	부인상	무릎덮는 길이	우입	혼용 혼용	직령		적색		귀부인			
	동벽행렬도	둔부선	우입		직령	착수		소색		평민		
	동벽 부인	둔부선	좌입		직령	착수		소색	현색			
각저총	여자	둔부를 반쯤 덮는 길이	좌입	좌입	직령		면포 또는 마	소색	현색	평민		
	안칸왼쪽	둔부선	좌입		직령	착수		황토색	현색 적색	귀족		
	안칸오른쪽	둔부선	좌입		직령			적색	현색			
고산동7호무덤		둔부선	좌입	좌입	직령			황토색	현색	평민		
동암리벽화무덤	남자1	둔부선	좌입	좌입	직령	착수		소색 적색	현색			
	남자2	둔부선	좌입		직령	착수		소색	적색	현색		
약수리벽화무덤		둔부선	좌입	좌입	직령	착수		황색		문지기		
무용총	무용도	둔부선	좌입	좌입	직령	장수	면포	황토색	현색	무희		
	현실벽화기마인물	둔부를 반쯤 덮는 길이	좌입		직령	착수		적황색	현색 소색			
	안칸왼쪽벽	둔부선	좌입		직령	착수		흑녹색	현색 적색	귀족		
	안칸왼쪽벽 사냥	둔부선	좌입		직령	착수		황색	현색			
팔청리벽화무덤		둔부선	좌입	좌입	직령	통수		황토색	소색 현색			
삼실총	행렬도	귀족 (남·여)	둔부를 반쯤 덮는 길이	좌입	좌입	직령	대수		소색 흑갈색	현색 적색	귀족	
		평민 (남·여)	둔부선			좌입	직령	통수		소색 황토색	현색	평민
		시녀	둔부선			좌입	직령	통수		소색	현색	시종
	역사	허리와 둔부선중간			곡령	착수	면포, 마포	소색	홍색 현색	역사		
덕흥리벽화무덤	앞칸동벽	둔부를 반쯤 덮는 길이	좌입	혼용	직령			황토색				
	안칸북벽	둔부선	우입		직령	착수		황토색		평민		
	안칸북벽	둔부선	우입		직령	착수		황토색	소색			
	앞칸서벽 (포)	바닥까지 끌릴 정도의 길이	좌입		곡령	대수		적색	현색			
장천1호분	돌놀이 장면	둔부선	좌입	좌입	직령	장수		소색	현색 적색	무용수		
	남자시종	둔부선	좌입		직령	통수	면포, 마포	소색	현색	시종		
	여자시종	둔부선	좌입		직령	통수	면포, 마포	두루색	자주색 벽돌색	시종		
대안리1호무덤		둔부를 반쯤 덮는 길이	좌입	좌입	직령			현색	현색			
수산리벽화무덤	귀족	둔부선	우입	혼용	직령	통수	건류	흑녹색	적색	귀부인		
	기예장면	둔부선	좌입		직령	착수		소색	현색	기예단		
쌍영총	불교공양도	둔부선	우입	우입	직령	대수	건류	현색	홍색	귀부인		
	안길동벽	둔부선	우입		직령	대수		소색	홍색 현색			

금동용봉봉래산향로		좌입	좌입	직령					
신라 토우	둔부선			직령	착수	배			
도제기마인물상	둔부선				착수				
용강동, 황성동 석실 고분 인물상									
상주석각천인상	둔부선								
토제여인인상	무릎선			직령					
문무왕릉 조각	무릎선	좌입		완만한 곡선	대수				
사마르칸트 아브라시압 벽화	둔부선			완만한 곡선	통수				

유는 전개교인형(前開交衿形)에 길이는 둔부를 가릴 만큼 길며, 령금(領襟), 도련, 수구에 선이 가해져 있다. 소매의 모양은 소매통이 좁고 손목까지 오는 통수와 손목으로 올수록 그 통이 좁아지는 착수, 소매통이 넓은 대수, 손을 가릴 만큼 긴 장수로 나뉘어 진다. 남녀가 공통으로 허리에는 대를 매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고름은 없다. 임제는 우입과 좌입이 혼용되어 보여지고, 유의 바탕색으로는 소색과 황색계열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선 장식은 현색과 적색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

### 3) 삼국시대 저고리(유)의 세부구조

#### (1) 령금(領襟)

##### ① 명칭

최세진의 [훈몽자회]의 복식편에 나타난 옷깃의 어휘를 보면 령(옷깃령, 목령),襟(옷깃 금 또는 기슭금),襟(옷깃 극),衿(기슭 입)을 볼 수 있는데, 이중 삼국시대에는 주로 령(領), 금(襟), 금(衿)이 사용된 것을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 옷깃을 의미하는 어휘를 령과 금의 두 문자가 결합된 령금으로 설명하였는데 령이란 중국의 文獻上 가장 많이 옷깃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문자로서 이 령은 본래는 項(항) 즉, 頸를 의미하며, 우리말로는 목덜미를 뜻하나 [詩經]이나 [釋名]에 頸의 의미로부터 변해서 목둘레를 두르는 부분으로 轉用되었던 것을 설명하고 있다. 령은 또한 의복의 목부분을 지시하는 뜻으로 直領, 曲領, 交領 등의 熟語가 만들어 졌다.

襟은 본래 末端의 주변에 선을 두른다(緣)라는 의미가 있으며 緊縛한다는 뜻으로 쓰여졌다.<sup>20)</sup> '衣皆謂之襟'으로 되어 있어 옷의 말단을 나타내고 있고, [釋名]에는 '襟, 禁也, 交於前, 所以禁禦風寒也'로 되어 있어 風寒을 막기 위해 옷의 앞에 열린 부

분을 여민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문의 옷깃은 저고리나 옷옷의 목에 둘러 대어 앞으로 여미는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깃(領)과 동의어<sup>21)</sup>로 사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리 말의 옷깃을 굳이 '령금'이란 용어로 사용한 것은 삼국시대 저고리의 령금은 목둘레부터 앞길을 지나 도련까지 연결된 가선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므로 조선시대의 '옷깃'이라는 용어를 삼국시대 저고리(유)의 용어로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목둘레를 의미하는 령과 末端의 주변에 선을 두른다는 의미의 금을 합하여 삼국시대 저고리의 목둘레선에 연장된 가선의 명칭을 령금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미 杉本年衿<sup>22)</sup>도 이에 대해 논한 바가 있다.

이와 함께 衿은 본래 끈의 의미로 [詩經], [說問] 어디에나 그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변해서 [禮記]에는 묶는다는 의미로 전화되었다. 그러나 같은 [詩經]중에도 鄭風에는 '青青子領 悠悠我心' 등으로 기술해 [毛傳]의 주석에 의해 '靑衿靑領也'로, 의복의 옷깃의 의미로도 꽤 오래 전부터 사용되고 있었다. 이것이 후대에 내려와 [方言]에는 '衿謂之交衣交領也'오 있어, 의복의 앞에 교차되는 부분을 지시하는 의미로 설명되고 있다. 거기에 6세기의 [顏氏家訓]下에는 '領下連干衿'으로 있어 목둘레만이 領이고 領에 붙어 이어진 앞 옷깃을 衿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같이 같은 문자도 시대에 의해 그 의미가 꽤 다르고 있는데, 중국의 고대문자에는 衿의 문자를 옷깃의 의미로 사용된 용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

##### ② 발생원인

령금의 발생원인은 첫째가 의복의 補強과 邊緣保護의 목적으로 의복의 가장자리나 천의 짜임이 헤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緣을 꼬매 넣는다는 다른

천조각을 부쳐서 만든다는 일차적인 의미가 있으나, 이후 따로 천을 붙여서 폭을 넓게 하거나 수를 놓아 문양을 넣어 장식용으로 配色을 연구하여 제2의 목적으로 변화해 가면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둘째는 방한의 수단으로 신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의복의 재료가 모피나 皮革인 유목사회에서는 1차적으로 방한의 목적으로 목둘레를 추위로부터 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목도리의 역할을 하기 위한 옷기의 발생이 생각된다. 따뜻한 날은 그것을 접어서 입고 추워지면 옷깃을 세워 방한의 역할이 옷기 발생 원인이 되었다. 이 옷기의 양식은 본래 방한의 목적이므로 폭이 넓고 목둘레의 형태는 盤領인 것이 합리적이었으며 처음에는 접었을 뿐이나 나중에는 따로 붙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마민족의 풍속인 호복의 양식이 농경사회에 들어오면서 의복의 재료가 布로 바뀌면서 옷기의 형태 연구는 계속 되었으나 일차적인 방한의 목적은 약해지고 호복의 활동성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 ③ 령금의 형태

삼국시대에 보여지는 령금은 직선으로 곧게 생긴 직령(直領), U자형의 둥근 깃인 단령(團領), 곡선으로 구부러진 곡령(曲領), 목이 적게 파인 둥근 깃으로 좌입의 반령 등이 있으며<sup>23)</sup> 가장 많은 것이 직령이다. 고분별로 보면 중기 이후 벽화 인물들은 거의 직령을 입고 있다. 곡령을 입은 경우는 안악 3호분의 주인공과 행렬도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단령을 입은 경우는 수산리 고분벽화등 전기 벽화에서 보여진다. 시기적으로 전기 고분 벽화는 직령과 단령이 함께 나타나는데, 쌍영총에서 여자는 직령을 남자는 단령을 입고 있다. 벽화에 나타난 령금은 색과 무늬가 다양하며 부선을 댄 경우도 있다. 무늬가 있는 것은 쌍영총 주실벽화와 수산리 고분벽화 등에서 볼 수 있는데 모두 전기 고분의 여인상에서 보여진다. 벽화 등 유물을 통해서 본 삼국시대 저고리의 령금은 직령교입이 대부분이며, 미세한 곡령교입도 보여진다. 이것은 앞서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본 저고리의 형태에서 살펴보았듯이 어깨에서 시작하여 반대편 끝반까지 가로지르는 가파른 대각선의 형태의 령금이 어깨에서 시작하여 앞 중심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변화하면서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통일신라 저고리의 령금 또한 삼국시대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옷기의 발생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2) 길

### ① 길이

길이는 주지된 바와 같이 둔부선을 중심으로, 둔부를 반쯤 덮은 길이, 둔부를 온전히 덮은 둔부선 길이로 축약된다.

### ② 여밈

고구려 벽화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집안 지역 고분 벽화에서 나타난 '유'의 형태는 좌입이 대부분이며, 평양천도 이전까지의 평양 지역에서 나타난 유의 형태 또한 좌입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아 평양 천도이전까지는 좌입의 기본형이 존재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안악3호분의 경우 평양 천도 전에 만들어진 고분벽화로 좌·우입이 혼용된 것으로 보아, 통구 시대에는 호복적 좌입제였던 것이 평양시대에는 일변하여 구제를 탈각하고 중국 복식의 우입제를 채택하였다<sup>24)</sup>는 기존의 학설에는 의문이 제기되는 바이다.

벽화에 인물도에는 좌입, 우입, 합입이 나타나고 있는데, 합입은 깃이 겹쳐지지 않고 앞쪽에서 마주 여며지는 상태를 말하며, 안악 3호분과 무용총 주실 북벽 천정받침의 주악비천상과 통구 오회분 4호묘 등 주로 신선상에서 주로 나타난다. 또한 삼실총, 무용총, 각저총 등 집안현 소재의 고분에는 좌입이 많고, 사신총, 쌍영총, 개마총 등의 평양 부근의 고분에는 우입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 (3) 소매

한자로는 수(袖), 폐(袂), 거(袪), 이(袪), 예(襟)라 하며 길이와 너비의 형태에 따라 종류가 나누어진다.

짧은 소매는 단수(短袖)라 하며 대략 손이 보이는 정도의 길이이고, 긴 소매는 장수(長袖)라 하여 손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인데, 손끝에서 다시 접어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보다 조금 짧은 것에서 좀더 짧은 것 등 여러 층이 있다. 배래가 좁은 소매를 착수(窄袖), 통수(筒袖)라 하며, 넓은 소매를 광수(廣袖), 대수(大袖)라 한다.<sup>25)</sup>

벽화에 나타난 유의 소매는 통수, 장수(삼통수), 대수가 보여진다. 소매가 좁고 팔목까지 오는 통수는 진동까지 소매 넓이가 같은 것으로 삼실총, 팔청리벽화 등에서 보여지며, 소매가 좁고 손을 가릴 정도로 긴 장수는 무용총과 장천1호분에서, 중국식 포처럼 수구가 넓고 소매가 늘어진 것은 아니지만 대수는 쌍영총과 수산리 고분벽화에서 보여지며, 상하 직급자가 모

두 대수를 입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소매 모양에 엄격한 계급차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4) 대

대는 유를 앞에서 여미어 입고 벗어지지 않도록 허리에 둘러매는 끈이다. 고구려 관계 고기록에는 '자라대(紫羅帶)'라는 비단대의 착용 기록이 있다.<sup>26)</sup> 이 끈은 초기에는 가느다란 끈으로 단순히 옷이 여미진 상태를 잘 유지시켜 주는 역할만을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계급사회에서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하게 되어 옷감으로 만들던 포백대(布帛帶)에서부터 각대(角帶), 피혁대(皮革帶), 은대(銀帶), 금대(金帶), 옥대(玉帶) 등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따라 매우 많은 명칭의 대가 생겨나게 되었다. 포백대는 전후 좌우 어느 방향으로라도 자유자재로 뒤틀수 있는 것으로 벽화에서 다양한 위치를 찾아볼 수 있다. 저고리의 띠를 뒤로 맨 것은 개마총의 말 옆에 있는 남자 그림에서, 저고리의 띠를 앞으로 맨 것은 쌍영총, 집안현 사신총, 각저총등에서 보여지며<sup>27)</sup>, 저고리와 포에 두 번의 대를 매어야 했던 당시에 띠를 같은 곳에서 중첩시키는 것보다 저고리를 앞으로 두루마기를 뒤로 매어 위치의 변화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포백대를 보면 선(襟)과 같은 색으로 만들어 두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약간 신분이 높은 귀인은 선과 다른색으로 만들어 두름으로써 신분 표시를 하였다.

백제의 국사가 입고 있는 저고리의 대는 고구려 벽화와는 달리 고구려보다 더욱 크게 중앙에 반듯하게 내려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백제의 대가 고구려보다 더욱 크게 중앙에 반듯하게 내려오게 되어 그 대속에 뾰뾰한 심을 넣은 것으로 보이며 신분의 품관을 표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5) 선과 색

##### ① 선

선은 의복의 전반에 걸쳐 사용한 것으로서 의복의 맨 끝인 가장자리에 의복 재료와는 다른 재료를 덧붙이는 것이다.<sup>28)</sup> 선은 연(緣)이라고도 하며 단이라고도 하는데 연장식(緣裝飾)이 領, 袖, 口, 裾에 있어서 北史에 [婦人의 유군에는 襟을 했다]는 기록과 같다. 그러나 선은 부인의 유군에만 있지 않고 남자의 유에도 나타난다. 고분벽화를 살펴보면 유의 깃 둘레와 단, 소매 끝에는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을 둘렀으며, 상고시대에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서호 여러 나라에서도 선 장식을 하였는데, 노인우라에서 출토된 적색 상의에서도 털로 선을 두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수렵생활에서 농경생활로 안정된 이후에는 옷감도 짜고 염색도 할 수 있게 되어 짐승의 털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색도 아름다운 옷감으로 선을 둘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의복의 끝부분에 문양으로 자수를 놓아 에워싸거나 특수한 색상의 옷감을 잘라 덧붙임으로써 인체에 해로운 질병이나 악령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또한 선은 옷감으로 끝부분을 풀리지 않고 헤어지지 않게 하는 봉제 방법상의 이점도 있어서 오래 계속되었으며 조선시대 삼회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선은 남녀 노소 귀천없이 사용되었으며, 백제에 있어서 선은 고구려보다 신분표시의 역할로서 더욱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백제가 대를 강조한 것처럼 선에서도 같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② 색

복식의 색은 백(白), 흑(黑), 홍(紅)색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점, 선, 당초, 구름문 등의 문양이 보여지는 것으로 보아 출처기염이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분벽화에서 저고리와 선의 색을 관찰해 보면 가장 많은 저고리 바탕색은 황색 계열이며 같은 황색이라도 주황(朱黃), 토황(土黃) 등으로 색깔 차이를 보인다.

고서에 의하면 신라인은 흰 비단에 그림을 잘 그렸고, 백제인도 벼슬아치의 옷에 붉은 색의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이것은 다만 물감으로 무의 모양을 칠한 듯 하나 같은 시대 고구려에서는 자주빛 바탕에 혈문 있는 것을 만들었으며, 침염을 하여 입은 것으로 보인다.

##### (6) 소재

위서, 삼국지 등에 누에와 뽕을 이용하여 비단과 면포를 만들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이르러 직물업이 점차 발달하여 견과 포의 직물은 물론이고 모직물까지 생산하여 점차로 직물의 복잡한 다양성을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sup>29)</sup>

유에 주로 사용되었던 포직물은 면포나 마포로 식물성 섬유로써 마포는 황마의 껍질을 면포는 닥나무 껍질로 만들 것이라 추측되며, 견은 평견으로 보여지며, 색견이라 하여 흰견에 물을 들여 사용한 듯 보인다.

백제의 국가 형성은 부여계 고구려 유이민에 의해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유이민이 백제 지역에 들어오기 전에 백제지역의 토착인들은 양잠(養蠶)은 할 줄 알고 삼베와 저포(紵布)를 짠으며 포의(布衣)를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삼국시대에 없었던 새로운 복식이 등장했으며 의복재료도 풍부해졌다. 견직물(絹織物)은 금(錦), 사(紗), 라(羅), 등과 포(布)에는 겹포, 마포, 면포 등이 있었다. 모직물(毛織物)에는 게, 장일, 구유, 모전, 백첩포 등이 있었다.

이상을 통해 삼국시대 저고리의 세부구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저고리의 령금의 경우 삼국시대에는 직령의 형태가 많이 보여지고 있고, 아주 완만한 곡령교임도 보이며, 통일신라시대 역시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여림은 집안지역에서는 좌임이 우세하고, 평양 부근지

는 착수와 통수는 평민과 시종계급에서 보여지고, 대수는 귀족계급에서만 보여지는 것으로 보아 소매 모양에 엄격한 계급차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대의 경우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허리부분에 착용하였으며, 전후좌우 어느 방향으로라도 맬 수 있는 것이었다. 삼국시대 저고리의 가장 큰 특징인 선의 경우는 남녀노소 귀천에 상관없이 사용되었으나 사용한 색에 있어서는 계급의 차를 볼 수 있다. 평민의 경우 현색의 선만이 발견되는 것에 비해 귀족은 현색과 적색, 홍색, 벽돌색과 같은 다양한 색이 사용되었다. 또한 귀족은 이중선과 빗금장식, 또는 금박무늬 등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과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귀족과 평민의 차이는 저고리의 바탕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귀족이 적색, 흑녹색, 황토색 등의 다양한 색을 사용한 것에 반해 평민은 황토색과 소색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소재는 귀족은 견류를 사용하고, 평민은 면포 또는 마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삼국시대 저고리 구조

세부구조	분류	비고	
1. 령금	직령	삼국시대	
	완만한 곡령	통일신라시대의 저고리	
2. 길	길이 ·둔부선 길이 ·둔부선을 반 쯤 덮는 길이	평양 부근 고분벽화 신선의 저고리 집안 지역의 고분벽화	
	여림- 직령교임		우임 좌임
3. 소매	착수	평민, 역사	
	통수	시종	
	대수	귀족	
	장수	무용수, 무희	
4. 대	포백대,		
5. 선과 색	선	현색	귀족, 평민
		적색, 홍색, 벽돌색	귀족, 시종
	색		귀족
		흑녹색	귀족
		황토색	귀족, 평민
6. 소재	견류	귀족	
	면포 또는 마	평민	

#### IV.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국시대의 저고리(유)는 상고시대 관두의 형의 피의에서 발달하여, 여기에 직사각형의 소매를 달고, 막혀있던 앞부분을 절개한 카프탄 형 의복으로 북방민족 및 중국과 일본과 함께 공유했던 형태이다. 삼국시대의 저고리는 직령전개교임형에 길이는 둔부를 가릴 만큼 길거나, 둔부를 반쯤 덮는 길이이며, 목둘레에서 시작하여 도련에 이르는 가선이 특징이며, 소매의 모양은 소매통이 좁고 손목까지 오는 통수와 손목으로 울수목 그 통이 좁아지는 착수, 소매통이 넓은 대수, 손을 가릴 만큼 긴 장수로 나뉘어 진다. 남녀가 공통으로 허리에 대를 매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고름의 형태는 찾아 볼 수 없다. 임제는 우임과 좌임이 모두 보여지고, 저고리의 바탕색으로는 소색과 황색계열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선 장식은 현색과 적색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

둘째, 삼국시대 저고리(유)의 구조는 령금, 길, 소매, 대, 선으로 분류된다. 삼국시대 저고리의 세부 구조를 분석한 결과 흔히 옷깃 또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저고리나 옷웃의 목에 둘러대어 앞으로 여미는 부분이 삼국시대 저고리에서 목둘레부터 앞길을 지나 도련까지 연결된 가선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므로 조선시대의 '옷깃'이라는 용어를 삼국시대 저고리(유)의 용어로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

역에서는 우임·좌임이 혼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안악3호분의 경우 평양 천도 전에 만들어진 고분벽화로 좌·우임이 혼용된 것으로 보아, 통구 시대에는 호복적 좌임제였던 것이 평양시대에는 일변하여 구제를 탈각하고 중국 복식의 우임제를 채택하였다<sup>30)</sup>는 기존의 학설에는 의문이 제기되는 바이다. 소매

고 생각된다. 이에 목둘레를 의미하는 령과 末端의 주변에 선을 두른다는 의미의 금을 합하여 삼국시대 저고리의 목둘레선에 연장된 가선의 명칭을 령금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저고리의 세부 구조 중 령금의 형태는 삼국시대에는 직령의 형태가 많이 보여지는데, 4세기 경에는 어깨에서 시작하여 반대편 골반까지 가로지르는 가파른 대각선이 특징이다. 그러나, 5세기 경에는 어깨에서 시작하여 앞 중심을 가로지르는 완만한 곡령의 형태도 보이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도 역시 그대로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것의 발생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427년 장수왕이 고구려의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기 이전에 평양아래지역인 황해남도에 축조된 안악3호분벽화의 저고리가 좌입, 우입이 혼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우리의 국속의 여밈은 좌입이었으나 평양으로 천도 후 중국의 영향으로 우입의 저고리를 입기 시작했다는 그간의 이론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반비와 같은 복제는 통일신라시기에 중국의 영향으로 입혀진 것이라 인지되고 있는데, 안악3호분에 그려진 여주인공의 복식이 반비로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복제가 통일신라시기에 나타난다는 것에 대한 학설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5세기 초에 축조된 덕흥리 고분의 13군 태수 하례도에서 보여지는 곡령교임은 직령에서 단령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도기적 성격으로 보아지며, 단령이 중국의 영향으로 고려시대부터 입기 시작했다고 단정 짓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즉, 이 시기의 국제질서는 고구려와 북방의 유목제국, 그리고 중국의 남북조를 중심으로 한 체제<sup>31)</sup>였으며, 그 당시 각 국의 경계는 국경선으로 확정지어진 오늘날과는 다른 세력권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제를 이미 공유하고 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이 시기의 동아시아는 서로 다른 계통의 여러 복식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융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 2보에서는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저고리 세부 구조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다.

## 참고문헌

- 1) 이여성 (1998). 조선복식고. 범우사. pp. 25-48.
- 2) 杉本正年 (1979). 동양복식사논고-고대편. 동경문화출판사. p. 51.
- 3) 황효영 (1969). 한국여자 저고리 형태의 역사적 변천.

대한가정학회지, 7, p. 27.

- 4) 조규화 (1980) 백제복식연구(百濟服飾研究)-일본고대사에 미친 백제문화의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4(1), p. 50.
- 5) 김영숙 (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p. 321.
- 6) 이여성. 앞의 책, p. 71.
- 7) 이경자 (1970). 여자저고리 소고. 대한가정학회지, p. 63.
- 8) 권준희, 조우현 (2002). 통일신라 내의, 단의 고찰. 복식, 52(2), pp. 109-110.
- 9) 김진구 (1994). 신라복식 어휘의 연구. 복식문화연구 2, pp. 192-195.
- 10) 전호태 (1999).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이야기. 풀빛 pp. 139-210.
- 11) 황효영. 앞의 논문, pp. 27-28.
- 12) 김용만 (2000). 고구려의 발견. 바다출판사, pp. 20-21.
- 13) 전호태. 앞의 책, pp. 146-147.
- 14) 황효영. 앞의 논문, pp. 27-28.
- 15) 위의 논문, pp. 27-28.
- 16)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p. 261.
- 17) 황효영. 앞의논문, p. 27.
- 18) 권준희, 조우현. 앞의 논문, p. 106.
- 19) 위의 논문, pp. 107-108.
- 20) 권준희, 조우현. 앞의논문, p. 106.
- 21) 김영숙. 한국복식문화사전, p. 291.
- 22) 杉本正年 (1979). 앞의 책, pp. 84-87.
- 23) 김영숙. 앞의 책, pp. 95-96.
- 24) 황효영. 앞의 논문, pp. 27-28.
- 25) 김영숙. 앞의 책, p. 247.
- 26) 유희경, 김문자. 앞의 책, p. 37.
- 27) 이여성. 앞의 책, p. 86.
- 28) 백영자, 최혜울. 앞의 책, p. 29.
- 29) 이여성. 앞의 책, p. 189.
- 30) 황효영. 앞의 논문, pp. 27-28.
- 31) 김용만. 앞의 책, pp. 20-21.